CNPC, 에틸렌 100만톤 크래커 건설

중국, 에틸렌 생산능력 1000만톤 목표 … 석유정제 플랜트도 증설

CNPC(China National Petroleum)가 24억달러를 투자해 Xinjiang Dushanzi에 에틸렌 100만톤 크래커를 건설할 계획이다.

에틸렌 크래커 건설은 중국-카자흐스탄 원유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CNPC는 중국 정부의 승인 이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일반용 플래스틱을 생산해 중국 중남부 지방에 공급할 방침이다.

CNPC Dushanzi Petrochemical은 정제 및 에틸렌 플랜트를 포함한 13개 설비와 53개의 석유정제·화학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석유 Primary Processing 능력 600만톤과 에틸렌 생산능력 22만톤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최대의 석유화학제품 수입국으로 총 수요의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에틸렌 크래커의 80% 이상을 증설해 생산능력 1000만톤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중국 석유정제 및 화학제품 생산기업의 구조조정과 혁신은 200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CNPC는 대형 석유정제 플랜트 6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Dalian West Pacific의 석유정제 1000만톤 혁신 프로젝트는 2004년 5월, Dalian Petrochemcal의 석유 프로세싱 혁신 프로젝트는 2006년 완료할 예정이다.

Lanzhou Petrochemical과 Fushun Petrochemical도 각각 석유정제 1000만톤 프로젝트를 곧 완료할 예정이며, Dushanzi Petrochemical과 Changqing Petrochemical도 각각 1000만톤 프로젝트를 조만간 착수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4/07/20>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